

孫 분당을 출마 애매모호 화법 관심

정치권 “한나라 재보선 흔들기 위한 전략” 분석

민주 강원 28~30일·김해울 20~21일 경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4·27 분당을 보선 출마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의 ‘알못 말 듯 한’ 발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들어 “무한책임은 지겠다”, “당의 승리를 위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출마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분당 출마’에 무게를 줬다. 하지만, 손 대표의 측근들은 그때마다 “달라진 게 없다”, “원본적 언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손 대표 분당 출마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 그의 출마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

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당에서 손 대표가 승리할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운찬 전 총리가 후보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차출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손 대표 본인이 ‘미묘한 여운’만 남긴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손 대표의 ‘나을 듯 말듯한’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재보선 전략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 (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명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것)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핵심 인사는

16일 “‘시소’의 균형을 잡듯 전체 계임의 균형추를 유지하기 위한 애매 모호함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애를 태우다 못해 손 대표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마설의 종결자”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로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물론, 손 대표가 실제로 분당 출마설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당 안팎의 시각도 있다. 손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근 여론조사 등 주변 여건이 분당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손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손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은 있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손 대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겠조”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오는 28~30일 경선을 거쳐 31일 후보를 결정기로 했다. 경선에 앞서 20일 원주권, 26일 춘천권, 27일 강릉권 등 3개 권역별 합동 연설회가 열리며 경선은 ‘당원전수조사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남 김해울의 경우 15, 18일 2차례의 후보자 토론회를 거쳐 20~21일 경선이 진행되며 경선결과는 21일 오후 발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안부 할머니들도 일본 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961차 '수요시위' 대신 진행한 '추모 침묵시위'에서 참석한 할머니들이 일본 대지진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전정책 재검토” 한목소리

행안위 “지진대책 총체적 점검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 여야 모두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안전성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 머무른 반면, 민주당은 원전 위주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온도차는 상당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동해안의 협소한 공간에 집결된 우리 원전의 안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전 점검은 학계·연구소·부처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적으로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의원은 “일본이 원전 53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21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도 10년 뒤면 35기가 넘어간다. 일본 지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지진 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성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재난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호경 전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무죄

전형준 전 군수 23일 재판 결과 주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입 전 군수와 ‘외나무 대결’이 예상되는 전형준 전 화순군수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6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입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입 전 군수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내용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 전 군수는 이날 판결로 4·27 재선거 출마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검찰이 당초 입 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상황이었어서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22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남골당 인·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해 상대 후보였던 원완준 전 군수에

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4·27 재선거에서 입 전 군수와 경쟁이 예상되는 전형준 전 군수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입 전 군수는 전완준 전 군수의 친형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태호 김해 출마 선언

정운찬 공천 신청 안해

한나라당의 4·27 재보선 공천신청 마감 결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김해울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성남 분당을 출마가 점쳐졌던 정운찬 전 총리는 신청서를 내지 않아 일단, 정 전 총리의 출마는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보선 후보로는 공천을 신청한 강재섭 전 대표 등 6명 중 1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변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 출마를 단행할 경우다.

정치권에서는 만일 손 대표가 분당을 출마를 선언하면 한나라당도 기존 경선 방침을 뒤집고 정 전 총리의 전략공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보선에서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공천을 신청, 본격적인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내달 3~4일 강원지사 후보 경선은 엄기영 전 MBC 사장, 이호영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 최홍집 전 강원도 정부부지사,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현직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재판에 받아들인 광주시의회 의원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을 고발한 전직 광주시의원을 맞고소했다.

광주시의회 소모 의원은 최근 양모 전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손 의원은 “양 전 의원이 실제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설문대상

자에 포함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양 전 의원의 잇따른 고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양 전 의원으로부터 3차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2건은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1

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승복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양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고발해 방어 차원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설문조사는 실제 대상자들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고 확인을 위해 연락처도 일일이 기재했다”며 “손 의원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유권자를 현혹해 당선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ki@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물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클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 입냄새, 입술터짐, 이가 시리고 아픈사람
- 농약을 다루는 사람의 목욕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맞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맞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도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자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